

『순수이성비판』 B판의 초월적 연역에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의 관계

강지영*

I. 문제제기

본 논문의 목표는 『순수이성비판』(이하 ‘『비판』’으로 약칭)¹⁾ B판에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subjektive Einheit²⁾ der Apperzeption”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objektive Einheit der Apperzeption)”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 1) 본문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인용은 관례에 따라 1781년의 초판(A)과 1787년의 재판(B)을 구별하여 표기한 후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수를 적을 것이며, 두 판본이 공유하는 원문은 두 판본의 쪽수 사이에 ‘=’ 기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것이다. 『순수이성비판』 외의 칸트 원전의 인용은 약호를 제시한 뒤 베를린 학술원판의 칸트 전집의 권수를 로마자로 기재한 뒤 쪽수를 명시할 것이다. 본문에서 인용한 원전의 약호는 참고문헌란을 참고하라.
- 2) ‘직관’이라는 표현이 직관하는 행위(das Anschauen) 또는 그 행위의 결과로 산출된 직관된 것(das Angesehaute)로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이라는 표현도 (표상들을) 통일하는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 산출된 통일된 것 모두를 뜻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주관의 심적 표상을 통일하는 통각 활동이 객관의 개념 하에서 표상들을 통일하는 통각 활동과 맺고 있는 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라는 표현은 B판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transzendente Deduktion der Kategorien”의 §18과 §19에서 등장하는데, §18은 초월적 연역의 전반부(§15-§21)에 위치한 두 개의 논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B판 연역의 전반부는 통각의 통일에 관한 논증(§15-§17)과 통각의 통일이 판단과 맺는 관계에 대한 논증(§19-§20)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논증을 매개하는 개념이 바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다. §18의 “통각의 객관적 통일” 개념을 통해 통각의 통일에 대한 §15에서 §17까지의 복잡한 해명들이 종합되고, 이어 §19에서 판단과 판단 기능이 “통각의 객관적 통일” 개념을 토대로 규정되는 것이다.³⁾ 그런데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주관적 통일과의 대립을 통해서 명료히 규정되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통일이 무엇이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B판 연역의 전반부 논증을 명료하게 하는 것에 기여한다.⁴⁾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나, 본 연구 주제는 선행연구가 적으며,⁵⁾ 국내에서는 주제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⁶⁾

3) “판단은 주어진 인식을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 가져가는 것이다.”(KrV B141)

4) 본 연구의 범위는 B판 연역으로 한정되기에 A판의 연역은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터러(Paul Natterer)는 B판의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A판의 “개념에서의 재인Rekognition im Begriff”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개념에서의 재인 모두 “재생된 표상들이 현상들과 일치한다는 경험적 의식empirische[s] Bewusstsein der Identität der reproduktiven Vorstellungen mit den Erscheinungen”(KrV A115)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나터러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의 활동은 재생적 상상력에 의해 지각과 이미지들의 부분표상들을 결합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연상적으로 표지들(Merkmalen)을 나열한 것일 뿐이며 대상 개념하에서 표상들을 체계적으로 통일한 것이 아니다. (Natterer, 2003, 183-4)

5) 국외의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Allison(2004), Ginsborg(1997, 2006), Carl(1998), Longuenesse(1998), Kitcher(2010), Motta(2017)

6) 간접적으로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국내연구로는 김화성(2005)의 연구와 배정호(2015)의 연구가 있다. 김화성은 초월적 연역의 함축을 받아들이면 꿈이나 공상과 같은 주관적 표상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잘 알려진 반론에 맞서서, 이러한 반론이 통각의 통일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 근거함을 보이고, 칸트에서 객관적 판단이 근거하는 논리적 판단기능과는 구별되던

게다가 선행연구 간에 합의된 해석 또한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칸트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부터 파생(abgeleitet sein)”⁷⁾되는 것인데, 선행연구에서는 이 구절에 주목하지 않거나⁸⁾, 이 구절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이 주제화되는 B판 초월적 영역의 §17에서 §19의 핵심 부분을 해설하면서⁹⁾,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이 무엇인지 규정할 것이다. 이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주어진 구체적 조건 하에서 객관적 통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칸트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 해명하고, 관련 선행연구의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서 주관적 표상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 판단기능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김화성의 연구는 칸트에서 초월논리학과 구별되는 논리학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정초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는 논 의 과정에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나(김화성, 2005, 77-78),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은 그의 논의에서는 부차적인 개념이기에 그는 두 통일작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한편 범주의 초월적 영역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배정호의 연구는 B판의 §15에서 §21까지를 해설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B판의 §17-§19도 다루고 있으나, 그의 연구는 지성적 종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통각의 객관적-주관적 통일의 관계를 주제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 7)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주어진 구체적 조건 하에서, 오직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부터 파생되며 (die[-die subjektive Einheit der Apperzeption] auch nur von der ersteren[-der objektiven Einheit der Apperzeption], unter gegebenen Bedingungen in concreto, abgeleitet ist [...])
- 8) 칼(Wolfgang Carl)에 따르면 B판 영역에서 칸트의 관심사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며,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을 대조적으로 정의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더 나아가 칼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경험적 상황 속에서 나의 표상들이 연상의 법칙에 따라 결합되는 조건을 **인지심리학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그에 반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표상들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되기 위한 선행적 조건들을 **인식론적으로(즉 초월론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Carl, 1998, 199) 모타(Giuseppe Motta) 또한 유사한 해석을 제시한다. 모타에 따르면 칸트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가진 심리적이고 경험적인 성격과의 대비를 통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가진 초월적이고 논리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칼과 모타의 해석은 영역에서 칸트의 관심사가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있다는 것과 두 종류의 통일이 대비되어 서로를 규정한다는 것을 짚었다는 점에서는 옳으나, 두 통일이 “파생abgeleitet sein”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두 종류의 통일이 대상 인식의 조건에 대한 상이한 학문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면, 어떻게 한 통일이 다른 통일에서 파생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9) KrV B136-142.

II.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

1. B판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서 통각의 객관적 통일의 역할

‘통각의 객관적 통일’과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라는 표현은 B판 초월적 연역의 전반부에 등장하기에, 연역의 전반부에서 이 개념들이 등장하는 맥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초월론적 감성학에서 직관은 감성의 형식에 의해 주어진 잡다의 통일된 표상으로 규정된다.¹⁰⁾ 감성학에서는 직관이 단칭표상이라는 것은 해명되거나 직관이 잡다를 자기 안에 포함하는 통일된 표상이라는 것은 해명되지 않았다. 즉 직관이 특정한 시공간 상에서 개별자를 포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칭 표상이라는 것이 해명되거나, 어떻게 직관이 잡다를 자기 안에 통일하는 통일성을 갖게 되는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이제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서 직관의 통일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해명된다.

B판 연역의 전반부는 잡다의 종합적 통일(synthesische Einheit) 즉 결합(Verbindung)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출발한다. 직관의 잡다(das Mannigfaltige der Anschauung)는 그 자체로는 다수의 파편적인 요소들로서 특정한 질서나 배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 표상에서 통일성을 발견하기에 이 통일성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에게 의해 투입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직관의 잡다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이 결합은 감성이 아니라 지성에 의해 수행된 것일 터이다. 왜냐하면 감성은 수동적으로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인데 단순히 표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표상들의 집적이나 나열이 일어날 뿐 하나의 대상으로 표상들이 통일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 잡다의 결합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통각의 통일이 제시된다. 잡다라는 파편적 요소들이 결합되려면 우선 잡다들이 나의 경험 대상이어야 한

10) 대표적으로 KrV A31=B47 참고. 표상의 일반적 분류를 제시하는 부분인 A320=B376과 논리학(Logik)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발견된다. Logik VI: 91 참고.

다. 따라서 잡다의 결합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인식자가 파편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경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그 자체로는 파편적인 잡다들이 나의 (하나의) 경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이 잡다가 인과율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실체들로서의 세계에 관한 지각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잡다가 결합될 수 있으려면 통각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어 칸트는 통각의 통일에서 판단에 대한 논의로 이행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통각의 통일에서 판단의 규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개념의 분석학”에서 판단은 지성의 활동과 동일시되었는데¹¹⁾, 이제 “초월적 연역”에서 판단은 직관의 잡다들을 객관의 개념 하에서 종합하는 통각활동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통각의 통일작용을 판단작용과 연결함으로써, 범주의 초월적 연역을 위한 핵심 단초가 비로소 확보된다. “개념의 분석학”에서 밝혀졌던, 판단의 논리적 형식이 바로 범주라는 생각에 근거하면, 범주가 대상에 대한 경험을 산출하도록 감관에 주어진 잡다들을 종합하는 선형적인 틀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구별은 통각의 종합적 통일 원칙을 다루는 §17에서 판단의 통일작용을 다루는 §19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18에서 처음 등장하나 이 개념은 §17에서 설명되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의 다른 표현이므로,¹²⁾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17에서부터 칸트의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17에서 §19까지의 주요부분을 해설하면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을 규정하겠다.

11) KrV A69-B94 “우리는 지성의 모든 활동들을 판단들로 환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성 일반은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12) KrV B139.

2.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 관하여 (§ 17)

§17에서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표상들(직관의 잡다)을 대상과 관련맺게 하여 인식을 성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이미 §16에서 등장하나 그것의 효과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17에서는 이 통일의 효과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i] “인식들은 주어진 표상들이 한 객관과 일정하게 관계맺는 것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객관이란, 객관의 개념 안에서 주어진 직관의 잡다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표상들의 모든 결합은, 표상들의 종합에서 의식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식의 통일은 표상들이 한 대상과 관계맺음을 그러므로 표상들의 객관적 타당성[대상에 유효함]을, 따라서 표상들이 인식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다.”¹³⁾

첫째 문장에 따르면 표상들(직관의 잡다)은 대상과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둘째 문장은 객관의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여 이 질문에 답한다. 객관의 개념이 종합의 규칙을 제공하고 그 규칙에 따라 종합이 일어남으로써 잡다가 하나의 대상에 “일정하게” 결합될 수 있다.¹⁴⁾ 그러나 표상들이 한 대상에 “일정하게” 결합되려면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셋째 문장에서는 이 추가조건이 설명된다. 셋째 문장에 따르면 표상들이 결합될 수 있으려면 표상들을 얻을 때 의식이 동일해야 한다(“의식의 통일”). 다시 말해 매 순간에서 의식이 동일하지 않다면 주어진 표상들을 서로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13) KrV B137.

14) 이와 유사한 생각을 A판에서도 찾을 수 있다. A판에서도 개념은 직관의 잡다를 종합할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Vgl. KrV A106, A113)

15) 얼핏 보기에 이 내용은 나의 모든 의식에서 동일자로 있는 자기의식에 대한 §15에서의 설명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어떤 한 직관에 주어지는 잡다한 표상들이 다 함께 자기 의식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다 함께 나의 표상이지는 못할 것이다.”(KrV B132) 그러나 §17에서는 §15에서 다른 수적 동일성로서의 “통각의 통일”을 넘어서서, 통각의 통일활동

이제까지는 인식이 가능하려면 객관의 개념 하에서 표상들을 통일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동일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이 어 표상들을 통일하는 통각 활동이 무엇인지 상술된다.

[ii] “공간상에서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나는 한 선분을 그려야 하고 그러므로 주어진 잡다를 일정하게 종합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행위의 통일은 동시에 (한 선분이라는 개념에서) 의식의 통일이며, 그로써 비로소 한 객관이 인식된다. 그러므로 의식의 종합적 통일은 모든 인식의 객관적 조건이다. 나는 한 객관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직관도 나에게 대해 객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 하에 종속해야 한다.”¹⁶⁾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잡다를 일정하게 종합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대상을 인식하려면 객관의 개념이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하나의 의식 하에서 직관의 잡다를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위 인용문은 인식하는 행위를 무언가를 그리는 행위와 유비시킨다. 선분을 인식하는 일은 선분의 개념이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서 잡다를 종합하는 것, 선분 그리기라는 활동을 하는 것에 다르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의식의 통일이면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의 의식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객관에 대한 인식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제시된 선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주체가 자신이 촘촘히 나열된 다수의 점들이 아닌,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일부도 아닌, 하나의 선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는 주체가 선분의 개념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라 표상들을 종합하고 있는지를 확인

이 가지는 특징을 “통각의 객관적·종합적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상술하고 있다. 한편 “순수 통각”, “근원적 통각”으로서 통각의 수적 동일성에 관해서는 헨리히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라. (Henrich, 1976, 76-79)

16) KrV B138.

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하나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경우, 그것을 통해서 결과물에 통일성이 부여되고 그 행위를 하는 이의 동일성도 확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분의 개념에 따라서 선분을 그리는 행위(즉 잡다를 종합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통해, 무수한 점들이 선분이라는 통일성을 얻고, 그 인식을 하고 있는 의식 또한 하나의 동일한 의식이라는 것이 확보되는 것이다. 보다 일반화하면, 개념이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 직관의 잡다를 종합하는 하나의 활동을 통해(즉 통각의 종합적 통일을 통해), 잡다가 객관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대상의 동일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그 활동은 하나의 활동이기에 그 종합적 통일활동을 하고 있는 의식적 주체의 동일성 또한 확보될 수 있다.

3.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 18)

§17에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경험 대상에 구성적인 것으로서, 따라서 “객관적인” 것으로서 규정되었다. §18에서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 “통각의 객관적 통일”과 동일시된다.

[i]“통각의 초월적 통일은 직관에 주어진 모든 잡다를 객관이라는 개념에서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 통일은 그 때문에 객관적 통일이라 불리고, 의식의 주관적 통일과 구별되어야만 한다.”(B 139)

여기서 통각의 초월적 통일에 대한 설명은 이전 논의에서 밝혀진 통각에 대한 규정들을 결합하고 있다. 즉 §16에 제시된 통각의 통일에 관한 일반적 규정, 즉 통각의 통일이 종합적이라는 것과 §17에 제시된 통각의 원칙, 즉 통각의 통일이 표상을 객관과 관련시킨다는 것이 위의 통각 규정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통각의 초월적 통일의 다른 표현이며 ‘통각의 초월적 통일’이 §17에서 해설된 “통각의 종합적 통일”과 같은 의미라

는 것을 통해, 세 표현은 동일한 사태를 가리킨다는 것이 드러난다. 여기서 ‘객관적 통일’이란 표현은 객관과 관계맺는다는 뜻으로 한정되어 있으며(“객관이라는 개념 하에서의 통일”), 통각의 객관적 통일과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대립 개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ii]“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내감의 규정이며, 내감을 통해서 직관의 잡다는 그러한 결함[주관적 통일]을 위해 경험적으로 주어진다. 내가 잡다를 경험적으로 의식할 때 동시에인지 잇따라인지는 상황과 경험적 조건에 달려 있다. 따라서 표상들의 연합에 의한 의식의 경험적 통일은 현상에 관계하고 전적으로 우연적이다.”¹⁷⁾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내감의 규정”인데, “내감”은 “정신이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능력”¹⁸⁾을 뜻한다. “내감의 규정”으로서의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시간상에서 주관의 심적 표상들을 종합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내가 종합한 내감의 상태들은 당시 내가 처한 우연적이고 경험적인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iii]“반면 주어진 잡다를 포함하는 직관 일반인, 시간에서 직관의 순수형식은, 의식의 근원적 통일에 종속된다. 이 일은 직관의 잡다가 ‘나는 생각한다’는 일자와 필연적으로 관계맺음으로써, 그러므로 경험적 종합의 기초에 선험적으로 놓인 지성의 순수종합에 의해 그렇게 된다. 저 초월적 통일만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¹⁹⁾

이제 통각의 주관적 통일에 대비되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주제화된다. 앞서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객관의 개념이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 직관의 잡다를 종합시키는 활동으로 해설되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것이 지성의 순수

17) KrV B139-140.

18) KrV A22=B37

19) KrV B140.

종합에 의해 잡다를 포착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해설된다. 지성의 순수종합을 통해 종합적 통일체로서의 시간 표상이 생산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지성의 순수종합에 근거한다는 것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직관의 순수 형식으로서의 시간 일반과 관련된다는 함축을 가진다. 즉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모든 직관에 유효한 형식적인 조건인 시간 일반과 관련된다.

그리고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지성의 순수종합에 근거한다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서 문제가 되는 “객관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다. 칸트가 ‘객관의 개념’이라는 표현으로 염두에 둔 것은 구체적인 개별 대상의 개념이 아니다. 만약 ‘객관의 개념’이 구체적인 개별 대상의 개념이라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시간 일반과 관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칸트가 염두에 둔 것은 “**객관 일반의 개념**”이며, 이 때의 객관은 시공간 상에서 인과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총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구성할 수 있는 객관이기에, **물리적 대상 일반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속에서 지속하며, 어떤 순간에서든 장소를 점하고 있고, 인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면과 뒷면 그리고 외부와 내부를 가지고 있고, 비록 인식자가 계기적으로 지각하더라도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의 부분들과 속성들을 가진 그런 물리적 대상의 개념 말이다. 그 결과 “객관의 개념” 하에서 잡다를 종합하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작용이 대상인식에서 기여하는 것은, **시공간적인 형태를 가지며 배경과 구별되는 통일된 개별자**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각글』 5933에서 발견되는 “대상 일반의 표상은, 그것이 이러한 의식의 객관적 통일(즉 논리적 통일)과 관련해서 규정되는 한에서, 범주이다.”라는 칸트의 설명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²⁰⁾ 이렇게 보면 “객관의 개념”에는 이미 실체, 인과 등의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게

20) “Die Vorstellung eines Objekts ueberhaupt, sofern es in Ansehung dieser objektiven Einheit des Bewusstseins (der logischen Einheit) bestimmt ist, ist Kategorie.”(XVIII, 392) 여기서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 ‘의식의 객관적 통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통각은 자기의식을 뜻하므로 의식의 객관적 통일을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된다.

[iv]“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지는 않는, 단지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조건 하에서 저것[-통각의 초월적·객관적 통일]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인 통각의 경험적[-주관적] 통일은 오직 경험적 타당성만을 가진다.”²¹⁾

이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주어진 구체적 조건하에서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부터 파생”된다. 여기서 ‘파생’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논리적인 도출/파생의 관계로 보지 않고 느슨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앞서 검토한 [iii]에서 이 ‘파생’ 관계를 해명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단초는 바로 [iii]의 “경험적 종합의 기초에 선험적으로 놓인 지성의 순수 종합에 의해”라는 구절이다.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지성의 순수종합”과 관련되고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경험적 종합”에 관련되는데, “지성의 순수종합”이 전제되어야 “경험적 종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통각의 객관적 통일인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태인지,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을 판단의 측면에서 대립시키는 §19를 검토하며 설명하겠다.

4 판단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 19)

§19에서 칸트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과 대상에 관한 판단을 연결시킨다.²²⁾ 칸트에 따르면 판단하기란, 주어진 표상들에 대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작용이다.²³⁾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대상 개념 하에서 직관의 잡다를 종합하여 통일

21) KrV B140.

22) A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판단은 통각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직관의 잡다를 개념에 따라 종합하는 하나의 활동에 대한 의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KrV A109)

23) 판단이 상이한 표상들을 하나의 의식(일반)에 속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조각술』 305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개념들 간의 포섭관계와 감각들(Empfindungen)

하는 것이었으므로, 칸트의 설명은 판단하기가 곧 표상들을 대상의 개념 하에서 종합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어 §19에서는 판단의 차원에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밝혀진다. “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무게의 압박을 느낀다.”라는 판단은 통각의 주관적 통일의 결과로 내린 판단이다. 이것은 경험적인 지각의 상황에서 주관의 두 가지 상이한 상태를 결합시킨 것이고, 이 결합은 재생적 상상력(reproduktive Einbildungskraft)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이러한 종류의 판단은 판단의 초점이 주관을 향해 있고, 어떤 표상들이 결합될지는 주관이 처한 상황에 의존적이다. 예컨대 주관의 상태에 따라서는 “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다리가 떨림을 느낀다.”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 반면 “물체는 무겁다.”라는 판단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의 결과로 내린 판단이다. 이 판단의 초점은 객관을 향해 있으며, 이 판단은 (주관의 상태와 독립적으로) 잡다를 종합할 때 개념이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 결합함으로써 잡다와 대상 간에 유효한 관계가 생겨난 경우이다.²⁴⁾

의 배열 관계 간의 대조가 발견되며, 의식의 통일 혹은 통각의 통일이 한낱 나의 의식이 아니라 의식 일반으로의 통일을 뜻한다는 생각도 찾을 수 있다.

“개념들은 그것들이 (감각의 경우처럼) 다른 것과 나란히 배열된 것이 아니라 포섭된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 하나의 의식에 속한다. 다양한 개념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 일반에(단순히 나의 의식에가 아니라) 속하는 방식으로 표상하는 것이 판단하기이다. 개념들은 일부는 상상력의 법칙에 따라 우연적이며 주관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의식에 속하거나, 혹은 지성을 가진 각각의 존재들에게 객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지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의식에 속한다. 주관적인 결합은 경험상에서 주체의 특수한 상황에 의존한다.(Begriffe gehoeren zu einem Bewusstsein nur dadurch, dass sie unter, nicht neben einander(wie Empfindungen) gedacht werden. Die Vorstellung der Art, wie verschiedene Begriffe(als solche) zu einem Bewusstsein ueberhaupt (nicht bloß meinem) gehoeren, ist das Urteil. Sie gehoeren zu einem Bewusstsein teils nach Gesetzen der Einbildungskraft als zufaellig subjektiv, oder des Verstandes, d.i. objektiv gueltig fuer jedes Wesen, das Verstand hat. Die subjektive Verknuepfung kommt auf die besondere Lage des Subjekts an in der Erfahrung.)

- 24) §19에서 칸트가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을 구별하기 위해 제시한 판단들은 『서설』의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사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순수이성비판』 §19에 따르면 모든 판단은 ‘제사 ~이다.’를 사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대상관련성을 가지는데, 『서설』에서의 지각판단은 판단의 형식과 제사를 사용함에도 대상과 관련되지 않고 오롯이 주관에 관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대립이 보다 분명해졌다. 첫째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주관의 내감을 통해 얻은 감성적 표상들을 통일시키는 것이고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객관의 개념이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 표상들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경험적 조건에 의존하며 우연적이나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그렇지 않다. 셋째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특수하게 규정된 시간적 질서와 관련되나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시간 일반이라는 직관의 순수형식과 관련된다. 넷째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재생적 상상력의 연상 법칙을 따르나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지성의 논리적 법칙을 따른다.²⁵⁾

칸트가 제시한 판단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가능하려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18을

련된 것이라고 하기에, 『순수이성비판』 §19에서 판단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서설』의 지각 판단-경험판단에 대한 설명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도의 연구를 요하는 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며 대표적인 해석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엘리스(Henry E. Allison)에 따르면 『비판』은 『서설』과 다른 주제를 다룬 것이어서 해석 상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Allison, 2004, 178-180) 이에 따르면 『서설』에 제시된 지각판단과 경험판단의 구별은 판단이 무엇인지 개념화하는 (흙의 견해에 가까운) 일상적 견해와 (칸트에 가까운) 초월론적 견해라는 두 방식을 대립시켜 설명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서설』의 설명을 두 종류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비판』과 모순되지만,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서술상의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 25) 이와 유사한 견해를 『조각글』 5933에서도 볼 수 있다.(RefI XVIII, 392) 단 여기서 칸트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 ‘의식의 경험적 통일’과 ‘의식의 논리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의식의 통일은 경험적이거나 논리적이다. 경험적[인 의식의 통일]이라는 것은 잡다를 지각 속에서 상상력에 의해 결합시키는 것이다. 논리적[인 의식의 통일]이라는 것은 대상의 표상에서 통일하는 것이다. 전자[의식의 경험적 통일]는 우연적이고 따라서 주관적이지만 후자[의식의 논리적 통일]는 필연적이며 객관적이다. 전자는 개념들을, 후자는 판단들과 판단들의 가능성 일반을 요구한다.”(Die Einheit des Bewusstseins ist entweder empirisch: in der Wahrnehmung des Manigfaltigen, verbunden durch Einbildungskraft. Oder sie ist logisch: die Einheit in der Vorstellung des Objekts. Die erstere ist zufällig und bloß subjektiv, die zweite notwendig und objektiv. Die erstere wird zu Begriffen, die zweite zu Urteilen erfordert und deren Möglichkeit ueberhaupt.)

통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지성의 순수종합”과 관련되고 “지성의 순수종합”은 단일하고 통일된 시간 표상을 산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단일하고 통일된 시간표상을 전제한다는 것을 보인다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가능하려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점을 판단의 경우를 고려하여 생각해보자. 통각의 주관적 통일의 결과로 산출된 판단은 특정한 시간 t_1 에서 “이것은 t_1 에서 나에게 이러저러하게 여겨진다(Das scheint mir ~.)”로 진술되거나, 혹은 상이한 시간 t_1 과 t_2 에서 “이것은 t_1 에서 나에게 이러저러하게 여겨지고, 저것은 t_2 에서 나에게 이러저러하게 여겨진다.”로 진술된다. 우선 특정 시간상에서의 판단을 생각해보자. 판단을 내리면서 ‘이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통일된 시간-공간의 표상이 필요하다. ‘이것’이라는 표현으로 나는 그것이 아직 무엇이라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어떤 개별적인 전체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에 불펜, 샤프 등의 구체적인 개념을 부가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로 포착된 대상이며, 이러한 포착이 가능하려면 단일한 시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상이한 시간 상에서 표상들을 연결하는 판단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려면 우선 통일된 시간 표상이 주어진 뒤, 이어서 시간이 규정된 결과로서 시간상에서 일정한 시퀀스들을 포착하여 종합해야 한다. 이 경우에서도 역시 단일하고 통일된 시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은 B판 연역 후반부 특히 §26에서 명백해지는데, 여기서 칸트는 직관의 형식적 성격에 호소한다.²⁶⁾ 감성학에서 밝혀진 것처럼, 공간과 시간은 그 자체로 잡다의 종합적 통일로서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한 지성의 종합하는 활동의 산물이어야만 한다. 칸트는 경험적인 직관 또한 선험적인 감성적 형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에 호소하여, 범주들이 어떻게 직관의 통일성의 원천일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제거한다. 칸트의 기본 생

26)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단순한 감성적 직관의 형식으로 선험적으로 표상될 뿐만 아니라 (잡다를 포함하는) 직관 그 자체로서, 따라서 직관에서 잡다의 통일이라는 규정으로서 선험적으로 표상된다.”(KrV B160)

각은, 직관의 감성적 형식이 경험에 앞서서 지성에 의해 범주적으로 틀지어졌다는 것이다. 시공간적인 통일성은 범주적 통일성의 특수한 계기이고, 이 말은 우리가 시공간 상에서 직관하는 대상들은 이미 지성에 의해 (단 순수하게) 개념적으로 규정되었다는 뜻이다.

이후에서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며 이제까지의 해석을 명확히 할 것이다.

III.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기존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긴즈버그(Hannah Ginsborg)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그 자신은 대상관련성이 없으면서도) 대상을 향하는 의식 활동(즉 통각의 객관적 통일)을 근거짓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해석은 (‘파생’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정하지 않더라도)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칸트의 주장과 충돌한다. 긴즈버그 또한 자신의 해석이 『비판』을 통해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²⁷⁾ 긴즈버그의 해석은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오해를 드러내고 있기에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긴즈버그는 칸트의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내감의 규정으로서 표상들을 객관의 개념 없이 종합하는 것임에 주목하고, 칸트에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이 개념은 경험개념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칸트의 인식론이 빠지게 되는 역설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본다.²⁸⁾

칸트의 인식론에서 개념은 잡다한 표상들을 종합하기 위한 규칙을 제공한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이 인식되어야 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다는 규범적 함의를 가진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개

27) Ginsborg, 1997, 66.

28) Ginsborg, 1997; 2006.

념을 얻게 된다는 것은 곧 그 대상에 관한 잡다를 재현할 때 상상력의 활동을 이끄는 규범적인 규칙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함축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잡다를 종합할 때 개념이 제시하는 규칙의 안내를 받으려면 종합 행위에 앞서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감각이 주어질 때 이것을 올바르게 표상하려면 개념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각적 이미지를 올바르게 표상할 근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떤 것에 대한 경험적 개념을 미리 갖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경험적 개념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²⁹⁾

긴즈버그에 따르면 이 역설을 해소하려면 인식자가 규칙을 먼저 인지한 뒤 잡다를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을 통일하는 행위 자체가 곧 규칙의 범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역설은 일어나지 않는다.³⁰⁾ 그리고 그녀는 많은 경험적이며 현상학적 사례들을 검토하여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서로 구별하는 일이 사전에 그 두 종류를 개념적으로 인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예컨대 아이들이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라든가, 아이들이 블록의 무더기에서 직육면체 블록과 사면체 블록을 구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언어의 규칙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아도 한 표현을 다른 표현과 구별하며, 직육면체와 사면체의 개념을 사전에 갖지 않아도 분류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³¹⁾ 그리하여 긴즈버그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이처럼 개념이 전제되지 않는 분류나 구별 행위를 할 때의 주관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 행위를 할 때 주관은 대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러면서도 나름의 규범적 요소를 가지고서 표상들을 결부시킨다. 이 때 주체는 자신의 지각을, 아직은 일정하지 않는 규칙의 범례로서 취하기 때문이다.³²⁾ 그 결과 긴즈버그에 따르면 통

29) Ginsborg, 1997, 48-59.

30) “이런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이 규칙의 안내를 받아서 일어나는 모델을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종합 행위가 (원초적 규범성primitive normativity을 가진) 규칙의 범례(exemplary of rules)가 되는 모델을 상정해야 한다.” (Ginsborg, 1997, 63)

31) Ginsborg, 2006, 361-363.

각의 주관적 통일이 전제되어야 통각의 객관적 통일 또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긴즈버그의 이러한 해석, 특히 역설에 대한 지적은 칸트가 통각의 객관적 통일을 설명하며 언급한 ‘객관의 개념’이란 표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 근거한다. 앞서 §18을 검토하며 지적한 것처럼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서 문제되는 객관의 개념은 구체적인 경험적 대상의 개념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긴즈버그는 객관의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적 대상 예컨대 개, 나무 등의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일례로 긴즈버그는 칸트의 개념론을 인식자가 처음부터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꼬리, 귀, 다리 등의 잡다한 표상들을 종합하여 (아르마딜로가 아니라) 개를 인식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한다.³³⁾ 그러나 여기서 객관의 개념은 (물리적) 대상 일반의 개념으로서, 이 개념은 특정 잡다를 시공간적 형태를 가지면서 배경과 구별되는 통일되며 지속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제공할 뿐이다. ‘객관의 개념’이란 표현의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긴즈버그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관계도 칸트의 주장과는 역 방향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키처(Patricia Kitcher)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의존한다.³⁴⁾ 키처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작용의 사례로, (로크가 관념들의 연상(association of ideas) 사례로 제시한 바 있는) 밤이 되면 고블린이 나타난다는 우화를 어릴 적부터 접한 사람의 경우를 제시한다. 어둠을 보면 고블린을 연결시키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은 어둠 표상과 위험함의 표상을 결합시킨다. 그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작용에 의해서, 내감에 의해 얻은 어둠 표상을 상상력의 재생의 법칙에 의해 위험함의 표상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연상의 법칙에 따라 어둠 표상과 위험함의 표상을 결합하려면 그 이전에 어둠과 위험함이라는 의식적인(conscious) 표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키처에 따르면 칸트에서 모든 의식적 표상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32) Ginsborg, 2006, 363.

33) Ginsborg, 1997, 45.

34) Kitcher, 2010, 158-159.

의해 획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의존한다.

키처는 두 종류의 통각 통일의 “파생” 관계를 의존(dependency) 관계로 해석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의존관계는 가능 조건의 관계이다. 즉 키처에 따르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다.³⁵⁾ 이 결론은 본 연구의 해석과 최종적으로는 일치하나, 키처는 잘못된 근거로 이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키처의 해석에 대한 의문은 그녀의 해석대로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모든 종류의 의식적인 표상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인지이다. 칸트는 B판 연역 §16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식적인 표상들은 통각의 근원적 통일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나³⁶⁾ 이 언명은 통각의 객관적-종합적 통일에 대한 주장은 아니다. §16에서는 ‘나는 사고한다’라는 표상 즉 통각이 나의 모든 의식적 표상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³⁷⁾ 특히 §16에서 통각의 통일은 표상의 주체가 표상들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주체의 자기 동일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표상들(직관의 잡다)을 객관과 관련시킨다는 것은 §17과 §18에서 비로소 밝혀진다.

롱그네스(Beatrice Longueness)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부터 파생”된다는 칸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주관적 통일에 선행하며 (통각의 주관적 통일

35) 키처는 사례를 제시하며 해당 주체가 표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판단의 형식을 갖춰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사례를 통각의 주관적 통일의 사례로 한정할 것을 볼 때 그녀가 염두에 둔 것은 “나는 어둠을 보면 위험함을 느낀다.” 정도의 판단일 것이다. 인식 주체가 표상들을 어떻게 결합(종합적 통일)했는지 밝히는 것은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데, 왜냐하면 만약 그가 “어둠은 위험하다.”라고 결합했다면 이것은 객관적 통일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6) KrV B131-133.

37) 이와 유사한 해석을 모타(Giuseppe Motta)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식적인 표상들은 통각의 근원적 통일 하에 있어야 한다는 통각의 원리에 근거하여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모든 외부의 그리고 모든 내부의 표상들에 대한 초월적 조건으로, 따라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의 조건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Motta, 2017, 64)

을 위한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주관적 통일을 규정한다.³⁸⁾ 롱그네스는 키처처럼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해석하되 그 기제를 상세히 해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롱그네스에 따르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이중적인 형식을 가진다. 하나는 종합적-직관적(synthetic-intuitive)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논변적-분석적(discursive-analytic) 형식이다.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한편으로는 직관의 잡다를 통일하기 위한 사공간적 통일의 형식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할 때 개념적 포섭관계에 의해 표상들을 통일하기 위한 판단의 논리적 형식을 제공한다. 롱그네스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제공하는 종합적-직관적 형식은 갖췄으나, 논변적-분석적 형식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롱그네스의 해석은 설득력이 적어 보인다. 김화성 또한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³⁹⁾, 칸트는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두 종류의 형식을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 ‘종합적-직관적 형식’과 ‘논변적-분석적 형식’이라는 표현 또한 칸트 자신의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얼핏 다소 무리해보이는 롱그네스의 해석은 대상 인식에서 감성과 지성이 모두 사용되면서도 지성이 능동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이려는 B판 영역의 기획을 염두에 두고 제안된 것이다. 그녀의 해석은 『비판』의 논의 전개과정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초월적 요소론”에 따르면 감성과 지성은 서로 구별되는 능력으로서, 수동적 능력인 감성은 단칭적이고 개별적인 인식인 직관을 제공하고 능동적 능력인 지성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후 “범주의 초월적 영역”에서는 단칭표상으로서 직관의 통일성이 가능하려면 지성의 종합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⁴⁰⁾ 이 구조를 고려하면 요소론의 설명은 영역에서 보완될 것을 염두

38) Longueness, 1998, 185.

39) 김화성, 2005, 85-86.

40) 초월적 영역에서 칸트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감성학의 논의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

에 두고 인식의 개별 요소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분석한 §18에 따르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모든 직관에 유효한 형식적 조건으로서 시간 일반과 관련맺는데, 롱그네스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그녀는 감성의 측면에서 ‘대상성objectivity’를 규정하는 형식인 통일된 시간의 표상 또한 지성의 활동에 의해 산출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18절에서 칸트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잡다들을 동시적인 것으로서 지각하거나 연속적인 것으로서 지각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각 경우 내가 부여하는 시간적 규정들은 나의 우연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동시적임이나 연속적임과 같은 시간적 규정은 시간 일반으로서의 통일된 시간이 선행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롱그네스의 해석에 따르면 이 통일된 시간이 바로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의해 제공된 형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의해 통일된 시간이라는 형식이 제공되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에 의해 이 형식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⁴¹⁾ 이러한 롱그네스의 해석은 앞서 검토한 “경험적 종합의 기초에 선험적으로 놓인 지성의 순수종합에 의해”에 라는 구절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통일된 시간 표상이 주어져야 비로소 구체적인 시간적 규정도 가능하기에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통각의 주관적 통일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롱그네스의 해석은 나름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롱그네스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 향하는

고 감성학에서는 논의의 필요상 그러한 주장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KrV B160)

41) Longueness, 1998, 186. 이와 유사한 해석을 엘리슨에게서 볼 수 있다. 엘리슨은 롱그네스처럼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시간을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형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으나, 시간의 통일성에 주목하여 통각의 객관적 통일과 주관적 통일의 관계를 해석한다. 엘리슨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논변적(discursive) 판단이 동반되지 않은 지각적 포착을 뜻한다. 그런데 시간 상에서 이런 지각적 포착이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연속적이면서도 구별되는 것임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내가 따뜻한 햇볕을 지각하고 이어 따뜻한 돌을 지각한다고 할 때 시간상에서 연속적인 이런 포착이 가능하려면 우선 통일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통일된 시간의 표상은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의해 얻어지며, 그 다음에야 비로소 시간을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규정하는 일인 통각의 주관적 통일을 수행할 수 있다. (Allison, 2004, 197-198)

일종의 초기 단계이며, 범주적인 규정을 거침으로써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완전히 근거를 둔 진정한 의미의 대상판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롱그네스의 해석은 통각의 주관적 통일에 의해 산출된 판단이 『서설』에서의 “지각판단”과 같은 것이라고 본 것에 기인한다. 『서설』에서 칸트는 모든 판단은 처음에는 그저 “지각판단”이나, 범주에 의해 규정되면 대상 관련성을 가지며 대상에 유효한 “경험판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물체를 들면 손에 무게를 느낀다.”와 같이 시간상에서 주관의 연속적인 두 감각을 연결한 것에 지나지 않는 지각판단은, 범주의 규정을 거치면 “물체는 무겁다.”라는 대상에 대해 유효한 경험판단이 된다. 롱그네스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을 대상을 지향하나 아직 범주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방식의 통일작용으로 본 뒤, 그 결과로 산출된 판단이 바로 『서설』에서의 지각판단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대상에 관한 판단이면서 불완전한 형태를 가진 “경험판단”의 초기단계라는 롱그네스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칸트에서 어떤 판단이 주관적 혹은 객관적이라는 것은 그 판단의 내용의 면에서 혹은 진리조건의 면에서 규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판단은 내용상 주관에 관한 것이어서 주관적이고, 내용상 대상에 관한 것이어서 객관적이다. 혹은 그 판단이 진리조건의 면에서 볼 때 우연적으로 참이어서 주관적이고 보편적-필연적으로 참이어서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검토한 것처럼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서 ‘객관적’이란 표현은 그것이 객관의 개념 하에서 직관의 잡다를 통일한다는 점에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작용에서 ‘주관적’이란 표현은 주관의 상태들을 통일한다는 점에서 부여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표현은 통일작용의 내용, 판단의 지시체에 따라 부여된 표현이다. 롱그네스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작용과 지각판단이 대상에 관한 것이면서 주관에게만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주관성-객관성을 진리조건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칸트의 규정과는 맞지 않다.

I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B판의 초월적 연역에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개념이 제시된 원전을 분석함으로써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객관의 개념 하에서 표상들을 종합함으로써 표상들에 대상관련성을 확보하는 활동이며,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내감을 통해 얻은 주관의 상태에 관한 표상들을 종합하는 활동임을 보였다. 그리고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이 1)전자는 주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고 후자는 객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며 2) 전자는 우연적이고 경험적이나 후자는 보편적이고 3)전자는 (재생적) 상상력의 연합의 법칙에 따르나 후자는 지성의 논리적 법칙에 따르며 4) 전자는 구체적인 시간 규정에 관련되나 후자는 직관 일반의 형식인 시간 일반과 관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통각의 객관적 통일로부터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파생된abgeleitet sein” 것이라는 칸트의 언명에 대해, ‘파생된’이라는 표현을 논리적인 파생관계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즉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라는 것이다. 나의 내감에 의해 얻은 심적 표상들을 잇달아서 결합하거나 동시에 결합하는 일(즉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가능하려면 통일된 시간 표상이 선행적으로 기초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바로 통각의 객관적 통일이 근거하는 지성의 순수종합이 이 통일된 시간 표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 다룬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의 구별은 통각의 종합적 통일을 다루는 §17로부터 판단의 통일을 다루는 §19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통각의 통일을 판단과 연결함으로써, 범주의 초월적 연역을 위한 핵심 단초가 비로소 확보되기 때문이다. “개념의 분석학”에서 밝혀졌던, 판단의 논리적 형식이 바로 범주라는 생각에 근거하면, 범주는 대상에 대한 경험을 산출하도록 감관에 주어진 잡다들을 종합하는 선행적인 틀이

기도 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칸트 인식론의 특정 개념을 명료화한 것뿐만 아니라 B판에서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전반부 논증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도 기여한다.

【주제어】 범주의 초월적 연역, 초월적 통각, 통각의 통일, 통각의 객관적 통일, 통각의 주관적 통일

[참고문헌]

- 김화성 (2005). 통각의 초월적 통일과 주관적 표상의 관계: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연역론을 중심으로. 칸트연구 15, 한국칸트학회, 77-100.
- 배정호 (2015). 대상 인식과 지성적 종합: 칸트 인식론에서의 지성적 종합에 대한 연구. 철학연구 135, 대한철학회, 273-297.
- Allison, H.E. (2004).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An Interpretation and Defens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arl, W. (1998). Die transzendente Deduktion in der zweiten Auflage: (B129 - B169).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on Georg Mohr and Marcus Willaschek, Berlin: Akademie Verlag, 189-216.
- Engstrom, S. (2013). Unity of Apperception. Studi Kantiani, 26, 37-54.
- Ginsborg, H. (1997). Lawfulness Without a Law: Kant on the Free Play of Imagination and Understanding. Philosophical Topics, 25(1), 37-81.
- _____. (2006). Empirical Concepts and the Content of Experienc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4(3), 349-372.
- Grüne, S. (2009). Blinde Anschauung: Die Rolle von Begriffen in Kants Theorie sinnlicher Synthesis. Frankfurt am Main: Klostermann Vittorio GmbH.
- Henrich, D. (1976). Identität und Objektivität. Eine Untersuchung über Kants transzendente Deduktion. Heidelberg: C.Winter Verlag.
- Kant, I. (1900).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De Gruyter.
-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약호 KrV)
- _____, Reflexion (AA 14 - 19) (약호 Refl)
- _____,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AA 04) (약호 Prol)
- Kitcher, P. (1990). Kant's Transcendental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2010). Kant's Think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Longuenesse, B. (1998). Kant and the Capacity to Judge: Sensibility and Discursivity in the Transcendental Analytic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tta, G. (2017). Was objektive Einheit des Selbstbewußtseins sei. § 18 als systembildendes Element der B-Deduktion. Immanuel Kant - Die Einheit des

Bewusstseins. hrsg. von Giuseppe Motta and Udo Thiel. Berlin: De Gruyter.
47-65.

Natterer, P. (2003).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Kritik der reinen Vernunft
(Kant-Studien Ergänzungsheft 141). Berlin: De Gruyter.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표는 『순수이성비판』 B판에서 “통각의 주관적 통일subjektive Einheit der Apperzeption”과 “통각의 객관적 통일objektive Einheit der Apperzeption”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이 주제화되는 B판의 “범주의 초월적 연역transzendente Deduktion der Kategorien”에서 §17부터 §19까지를 해설하여 통각의 주관적 통일과 객관적 통일이 무엇인지 규정하였다.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표상들을 객관의 개념 하에서 종합하는 활동을,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내감에 의해 제공된 주관의 상태 표상들을 종합하는 활동이다. 칸트에 따르면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주어진 구체적 조건하에서 객관적 통일로부터 파생된(abgeleitet sein)” 것인데, 본 논문은 이 때의 ‘파생된’이라는 표현은 (논리적인 파생관계가 아니라) 가능조건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즉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통각의 주관적 통일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다. 내감의 표상들을 종합하는 일(즉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통일된 시공간 표상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의해 통일된 시공간 표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bstr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and the O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in the B Edition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Kang, Ji Young (University of Seoul)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subjektive Einheit der Apperception)" and the "o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objective Einheit der Apperception)" in the B edition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To this end, I define what subjective unity and o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are by explaining from §17 to §19 of the B edition of the "Transcendental Deduction of Categories," where the subjective unity and o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are thematized. I then clarified what Kant meant by his explanation that the su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is "derived from the objective unity under given conditions in concreto" by critically examining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task of the "Transcendental Deduction of Categories" is to show how a perception constituted by the subject's perceptual faculties can be a valid perception of an object. In the B version of the Deduction, this was done by showing that the activity of understanding is both the capacity to synthesize and the capacity to judge, and thus the activity of the understanding is necessary for the knowledge of objects. Since the su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and the o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are concepts that emerge in the context of explaining this capacity of the understand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clarifying the aim and argumentation structure of the B version of the Transcendental Deduction of Categories.

[Keywords] transcendental deduction of categories, transcendental apperception, o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subjective unity of apperception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12일 / 논문심사일: 2023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8일

【저자연락처】 jykang0213@uos.ac.kr